MACRO
VIEW

2026. 3. 13.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3월 셋째 주

FOMC Preview: All about Hormuz; 경기보다는 물가에 민감

- 국제유가의 상승폭과 기간이 핵심 변수. 시장 반응은 유가 20%이내에서는 낮은 민감도를, 20~40%에서는 높은 민감도를, 40%이상에서는 stagflation 우려 확산
- 3월 FOMC를 앞두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과 물가의 상방 위험이 동시에 증가. 이란 사태 장기화 시, Fed는 물가 상승 리스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유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이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 사태의 출구 전략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심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재차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브렌트유는 100달러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급증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증시 하락과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물가 우려 심화로 주요국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주간의 유가와 금융시장 간 반응 함수를 살펴보면, 이란 사태 발생 전후의 WTI 70달러를 기준으로, 상승률 20%이내, 약 85달러 이하일 경우, 유가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20%이내의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주요국 대부분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가 상승률 20~40%구간, 즉 약 85~100달러 범위에서는 민감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비대칭적 반응이 나타난다. 즉, 산유국인 미국에는 inflation shock으로,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국인 non-US에는 growth shock으로 상이한 충격을 주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미국이 미국 외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달러 강세가 진행된다. 더 나아가 유가 상승률 40%이상, 즉 100달러 이상의 구간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내 stagflation 내러티브가 급격히 확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가 심화된다.

결국, 과거 대부분의 중동 관련 지정학 이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경우도 국제유가의 상승폭과 기간이 핵심 변수이다. 높아진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3월 말까지 WTI 유가가 8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미국 및 주요국 성장률, 물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20%이상의 유가 급등이 4월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은 물가를 중심으로, 미국 외 지역에는 성장률을 중심으로 기간에 비례해서 충격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란 사태에 따른 이러한 전망의 불확실성은 17~18일 예정된 3월 FOMC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발표된 미국 2월 고용동향은 의료 파업과 초대형 눈폭풍(Fern) 등의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은 월간 6천명에 불과해 break-even payroll 5~6만명을 크게 하회함에 따라, 실업률도 4.44%로 재차 높아졌다. 이는 1월 FOMC에서의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와는 사뭇 달라진 변화이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따라서, 고용지표의 변화만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금리 인하를 좀 더 지지하는 방향이다. 문제는 지난해의 관세 충격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발생한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미국의 성장률, 고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22~23년의 사례는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복합된 물가 충격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2월 CPI에서도 상반기 예상되는 물가 둔화의 속도가 기대보다 더딜 수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비록 2월 핵심 CPI가 전월 대비 0.2%로 예상에 부합했지만, 소위 슈퍼 코어(주거비 제외 핵심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 발표 예정인 2월 핵심 PCE물가는 전월 대비 약 0.34%(전년 대비 3.0%)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핵심 PCE물가 기준으로, 1월(3월 13일 발표 예정)에 전년 대비 3.1%에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상반기 중 물가 둔화의 정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최근의 유가 급등으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10년물 BEI가 6개월래 최고 수준(2.40%)을 기록하면서, 적어도 유가의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FOMC 내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강한 컨센서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참고로, 약 30% 상승한 현재의 유가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headline 인플레이션은 약 0.6~0.7%pts, 핵심 인플레이션은 약 0.1~0.2%pts 상승하는 반면, 성장률은 약 0.2%pts 하락이 예상된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물가의 2차 파급효과와 금융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 계산으로 산출한 수치를 크게 상회할 위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당사는 3월 FOMC에서 제시되는 미국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3개월 전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거나 소폭의 변화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방향성 측면에서는 성장률 전망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은 각각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월 FOMC 이후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예상 금리 인하 횟수(dot-plot)도 기존 각 1회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아직은 dual mandate 그 어느 쪽의 리스크가 다른 한쪽을 압도할 정도로 커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Fed는 이란 사태의 향방과 함께 적어도 1~2달의 추가적인 고용 및 물가 지표를 더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다.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올해 중반 이후 본격적인 disinflation 추세로 전환되면서 중립금리를 향한 normalization cuts(6월과 9월)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폭과 기간에 따라, 물가 정상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란 사태 발발 이후, 선물시장에서는 연내 2회에 달하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재 0.8회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당사는 차주 이란 사태의 추이, 특히 호르무즈 통행 정상화 여부 등을 반영하여, Fed call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진욱)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3월 FOMC(17~18일)가 예정되어 있다. 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와 내년 예상 금리 인하 횟수(dot-plot)도 각각 1회씩으로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2월 고용동향과 이란 사태는 미국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과 물가의 상방 위험이 동시에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란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FOMC 참여자들은 당분간 wait-and-see 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와는 달리,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 '22~23년의 에피소드를 경험한 Fed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다음 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19일)가 예정되어 있다. ECB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은 연내 1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반영한 상태다. 다만 전쟁의 추후 전개가 불확실하고,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1.9%에 그쳤다는 점으로 인해 ECB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CB 주요 인사들 역시 3월 회의에서의 금리 변경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당사는 수주 내 갈등 완화를 전제로 2026년 ECB 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현 수준 이상에서 유지될 경우(브렌트유 100달러, 유럽 천연가스 가격 60유로 상회) 연말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5%를 상회할 것이 유력하다. 이는 하반기 ECB의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유발할 것이다.

중국: 다음 주에는 1~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16일)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0%로 지난해 평균 수준(5.5%)을 하회할 전망이다. 대외 부문의 수요 증가와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의 확대로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1.8%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으나, 소비, 건설 등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명목)는 부동산 투자가 -19.3%로 부진하고 인프라 투자도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4.2%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0%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초에는 이구환신으로 자동차와 가전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다음 주에는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18~19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와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지난 2월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총재와의 회동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금융정책 회의에서 우에다 총재는 4월 물가 지표에서의 가격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본 소비자물가도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긴장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유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이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 사태의 출구 전략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심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재차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급증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증시 하락과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물가 우려 심화로 주요국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주간의 유가와 금융시장 간 반응 함수를 살펴보면, 이란 사태 발생 전후의 WTI 70달러를 기준으로, 상승률 20%이내, 약 85달러 이하일 경우, 유가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20%이내의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주요국 대부분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가 상승률 20~40%구간, 즉 약 85~100달러 범위에서는 민감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비대칭적 반응이 나타난다. 즉, 산유국인 미국에는 inflation shock으로,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국인 non-US에는 growth shock으로 상이한 충격을 주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미국이 미국 외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달러 강세가 진행된다. 더 나아가 유가 상승률 40%이상, 즉 100달러 이상의 구간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내 stagflation 내러티브가 급격히 확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가 심화된다.

결국, 과거 대부분의 중동 관련 지정학 이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경우도 국제유가의 상승폭과 기간이 핵심 변수이다. 높아진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3월 말까지 WTI 유가가 8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미국 및 주요국 성장률, 물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20%이상의 유가 급등이 4월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은 물가를 중심으로, 미국 외 지역에는 성장률을 중심으로 기간에 비례해서 충격이 가중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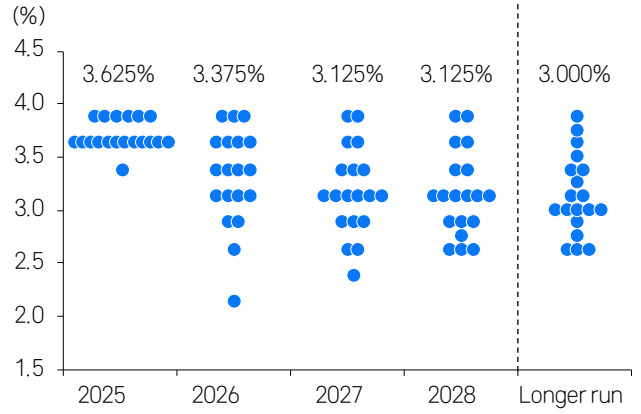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미국	3월 19일	3월 FOMC	-	-	-	-	• 올해 6-9월 인하 전망 유지
유로존	3월 19일	3월 ECB 통화정책회의	-	-	-	-	• 연내 금리 동결 전망 유지 (예치금리 2.0%)
일본	3월 19일	3월 BOJ 금융정책결정위원회 회의	-	-	-	-	• 정책금리 동결 전망
경제 지표							
미국	3월 16일	3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지수	37.0	36.0	상	
	3월 18일	2월 PPI	전월 대비	0.3%	0.5%	상	
		1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	-0.7%	상	
	3월 19일	1월 신규주택판매	전월 대비	-2.7%	-1.7%	상	
독일	3월 17일	3월 ZEW 전망 지수	지수	43.7	58.3	중	
		3월 ZEW 동향 지수	지수	-68.0	-65.9	중	
중국	3월 16일	2월 고정자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4.2%	-	상	
		2월 부동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19.3%	-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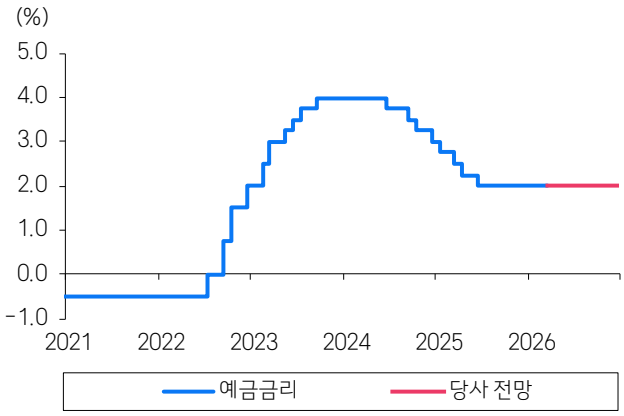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12월 FOMC dot-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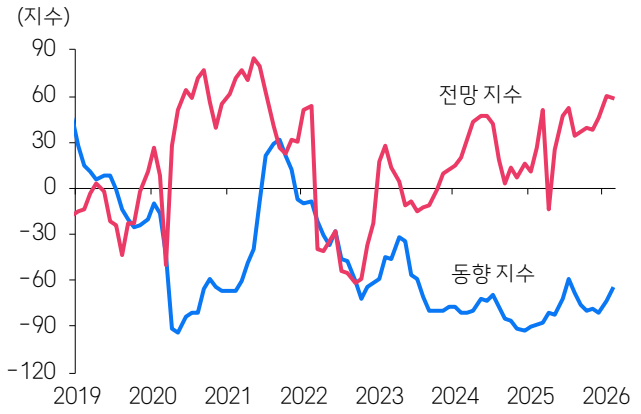
참고: 숫자는 median 기준
자료: Federal Reserve

ECB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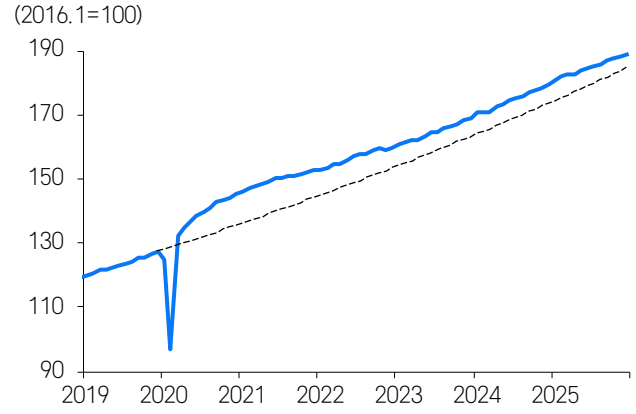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삼성증권

독일 ZEW 지수: 경기 동향 vs.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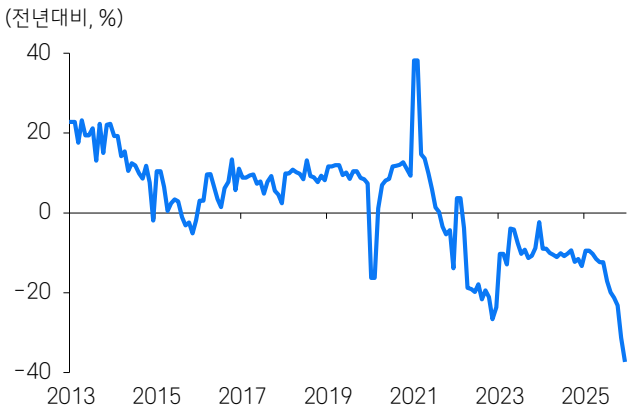
자료: Leibniz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중국 산업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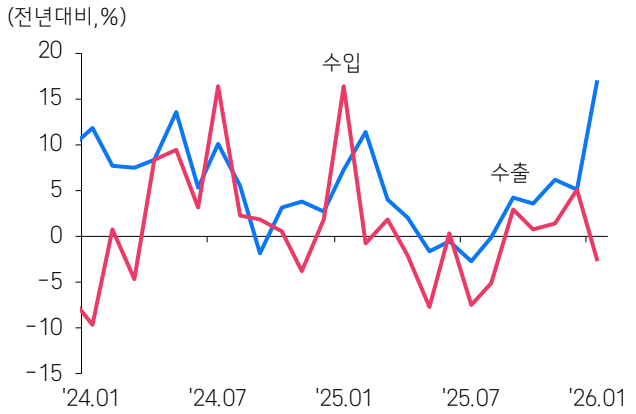
참고: 계절조정 전년 대비로 추정, 점선은 기존 추세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가율 (-) 지속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수출입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 2월 CPI(11일)가 발표되었다. 2월 headline 및 core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2%, 0.3% 상승하면서 당사 및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각각 2.4%와 2.5% 상승하면서 전월과 같은 물가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0.8%, 이하 전월 대비), 식품(0.4%) 등 품목 상승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주거용 주택 임대료 가격(rent)이 0.1%로 '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당사는 오는 4월부터 지난해 셧다운에 따른 주거비 산정 이슈가 사라짐에 따라 CPI 상승률이 반등(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이번 주에는 2월 물가지표(9일)와 1~2월 수출입(10일)이 발표되었다. 중국 2월 소비자물가는 1.3%(이하 전년 대비)로 시장 예상(0.9%, Bloomberg 기준)을 상회했다. 이는 올해와 지난해 춘절 연휴 시기가 서로 달라 기저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며, 이를 감안한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지난해 12월과 같았다. 품목별 상승률에서도 춘절 연휴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비행기표, 교통수단 임차료 등이 상승하면서 서비스업 가격 상승률은 1.6%로 24개월래 가장 높았고, 식품도 1.7%를 기록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는 서비스업과 금장식류(76.6%) 가격 상승에 1월 0.8%에서 2월 1.8%로 높아졌으며, 1~2월 평균은 1.3%로 12월(1.2%)을 소폭 상회했다. 2월 생산자물가는 -0.9%로 시장 예상(-1.1%)을 상회하면서 하락 폭을 축소했다. 이는 주로 비철금속과 석유, 그리고 AI 투자 관련 업종의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한 영향이다. 또한, 반내권화 정책 영향으로 태양광이 3.2%, 리튬배터리가 0.2%를 기록했다. 다만, 데이터가 발표된 27개 업종 중 11개 업종만이 전월 대비 (+)를 기록했다.

중국 1~2월 수출은 21.8%(이하 전년 대비)로 12월 실적(6.6%)과 시장 예상(7.2%, Bloomberg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증가세,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판단한다. 반도체는 72.6%, 자동차는 67.1%를 기록했고, 두 품목은 전체 수출 증가의 1/4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의 플라스틱(25.6%), 일반기계(19.1%)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1~2월 수입도 19.8%를 기록하면서 12월 실적(5.7%)와 시장 예상(7.0%)을 상회했다. 반도체(39.8%)와 구리광석(42.7%) 등 비철금속의 수입 증가가 확대된 영향이다.

일본: 이번 주 1월 임금 상승률(9일)이 발표되었다. 1월 명목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3.0%로 전월 및 시장예상(각각 2.4%, 이하 모두 전년 대비)을 상회했다. 항목별로 보면 주로 기본급 상승률이 전년 대비 3.0%로 전월(2.1%) 대비 개선된 영향이었으며, 그 외 초과근무수당은 3.3%, 보너스 등 특별급여 항목도 3.8% 상승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높은 임금 상승률 추세와 더불어,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면서 실질 임금이 1.4%로 13개월만에 (+) 전환한 것이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 둔화가 상당 부분 정책 효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임금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향후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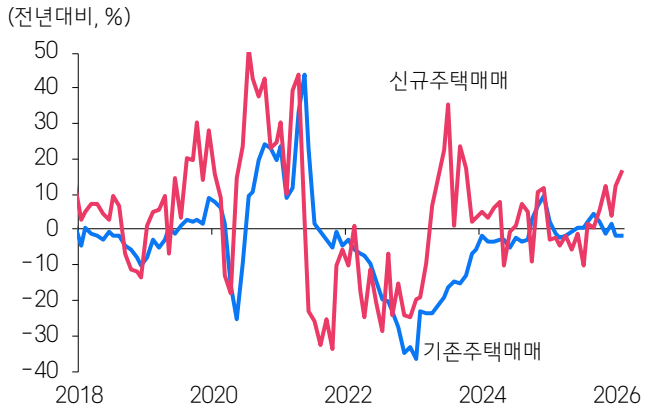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경제 지표								
미국	3월 10일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지수	99.6	98.8	99.3	Below	
		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 대비	-0.8%	1.7%	-5.9%	Above	
	3월 11일	2월 CPI	전월 대비	0.3%	0.3%	0.2%	In-line	
	3월 12일	1월 주택 착공	전월 대비	-4.5%	7.2%	4.8%	Above	
		1월 건축허가	전월 대비	-3.1%	-5.4%	4.8%	Below	
	3월 13일	1월 개인소득	전월 대비	0.5%	-	0.3%	-	
		1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3%	-	0.4%	-	
		1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3%	-	0.4%	-	
		1월 내구재주문	전월 대비	1.1%	-	-1.4%	-	
		1월 자본재주문	전월 대비	0.5%	-	0.8%	-	
		1월 JOLTS 구인 건수	천 명	6,750.0	-	6,542.0	-	
유로존	3월 9일	3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지수	-3.0	-3.1	4.2	Below	
	3월 13일	1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6%	-	-1.4%	-	
독일	3월 9일	1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4.3%	-11.1%	6.4%	Below	
		1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1.0%	-0.5%	-1.0%	Below	
중국	3월 9일	2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1.1%	-0.9%	-1.4%	Above	
		2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0.9%	1.3%	0.2%	Above	• 춘절 연휴 시기가 달라 기저효과 나타남
	3월 10일	2월 수출	전년 대비	-	39.6%	-	-	•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증가 영향
		2월 수입	전년 대비	-	13.8%	-	-	
	3월 11일	2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5,576.0	-	4,710.0	-	
		2월 총 사회융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9,245.4	-	7,220.0	-	
		2월 M2	전년 대비	8.9%	-	9.0%	-	
일본	3월 9일	1월 명목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2.4%	3.0%	2.4%	Above	• 소비자 물가 둔화로 실질 임금 (+) 전환
	3월 11일	2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2.2%	2.0%	2.3%	Below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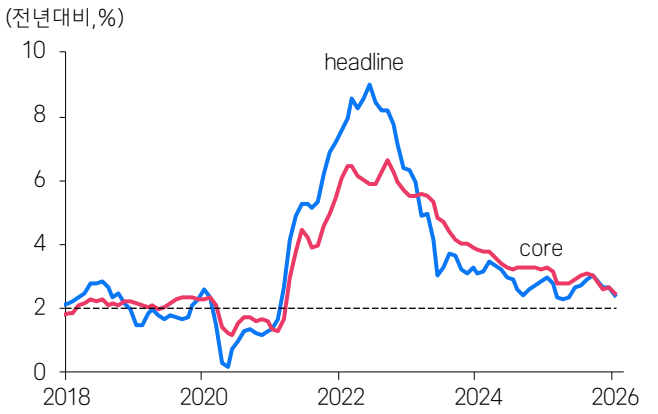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기존주택매매 vs. 신규주택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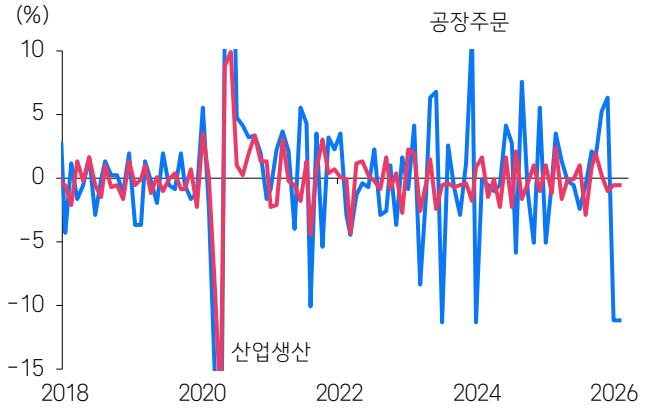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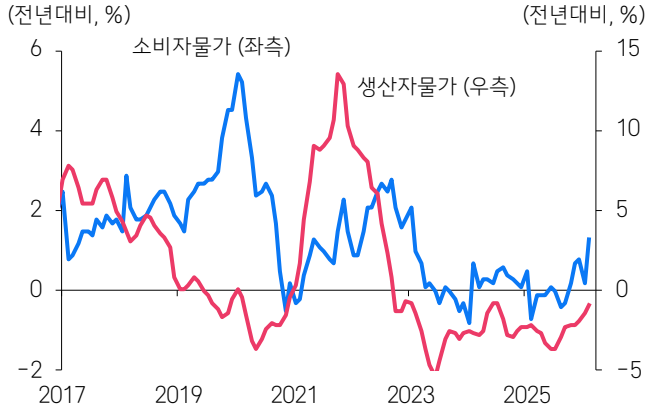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독일 공장주문 vs.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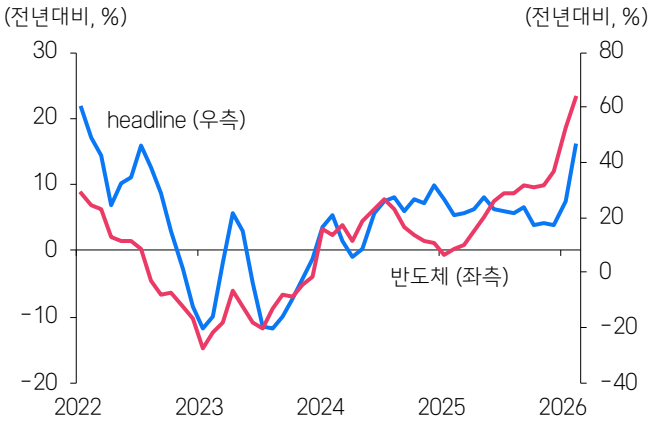
자료: Deutsche Bundesbank

중국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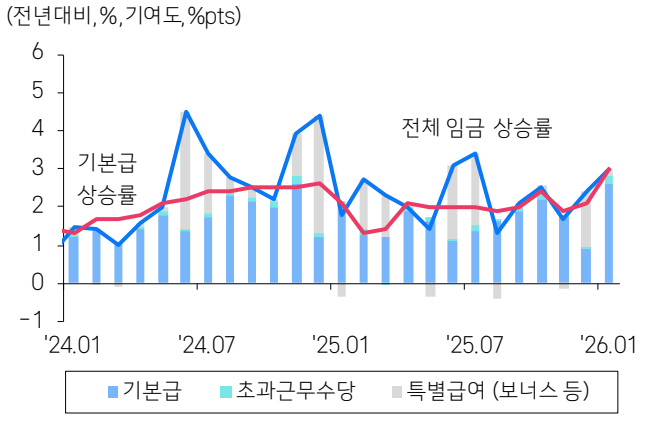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수출 중 반도체 수출 빠른 속도로 증가



참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일본 항목별 임금 상승률 breakdown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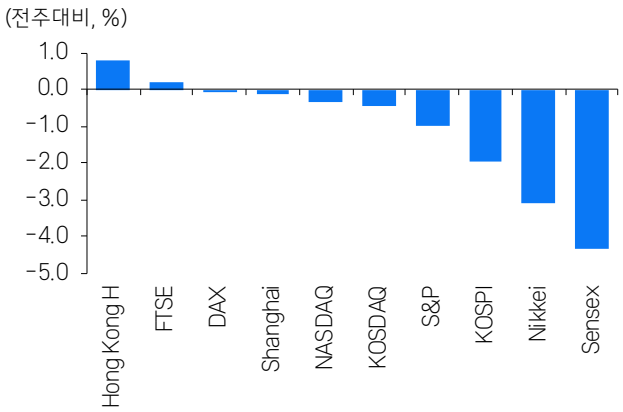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3월 13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했다. 중동에서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 여건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된 영향이다. 이란의 신규 지도부가 호르무즈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미국 S&P 500은 -1.0%, 나스닥은 -0.3%를 기록했다. 유럽 증시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했다. 시장이 연내 1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가운데, 유로스톡스 50은 -0.6%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순매도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락세를 이어갔다. 조선, 원전 등 일부 업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KOSPI는 -2.3%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99.0에서 99.6으로 상승했다. 이번 주 달러는 주로 이란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등락했다. 다만, 당사는 최근의 달러 강세가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교역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화 및 성장률 둔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중 10일 전쟁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조기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WTI 기준 배럴당 100 달러를 넘겼던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도 99pt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유조선을 포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며 재차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렸다. 한편, 달러 강세 과정에서 엔/달러는 160엔 가까이 약세를 보였다. 3월 들어 중동 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요국 중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특히 높은 일본의 통화 가치약세가 부각되었다. 이번 주 달러 대비 위안화는 0.3%, 영국 -0.4%, 유로화 -0.8%, 엔화 -0.9%, 원화는 약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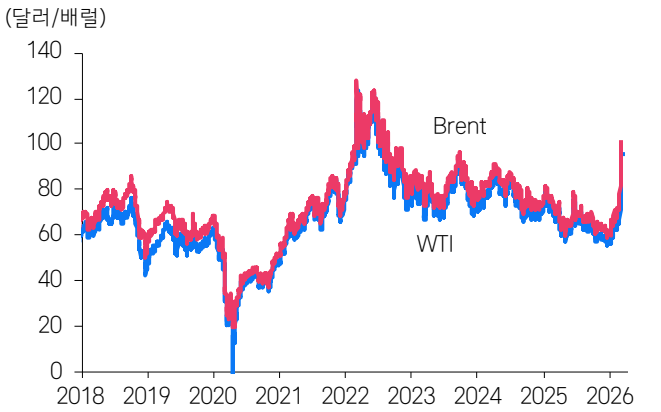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90.9에서 $95.7로, 브렌트는 $92.7에서 $100.7로 상승했다. WTI와 브렌트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각각 $94.8, $99.0 수준에 근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시사와 G7의 비축유 공동 방출 논의 소식이 전해지며 일시적으로 반락했다. 그러나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공격을 이어가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또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공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선진국의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글로벌 공급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3월 1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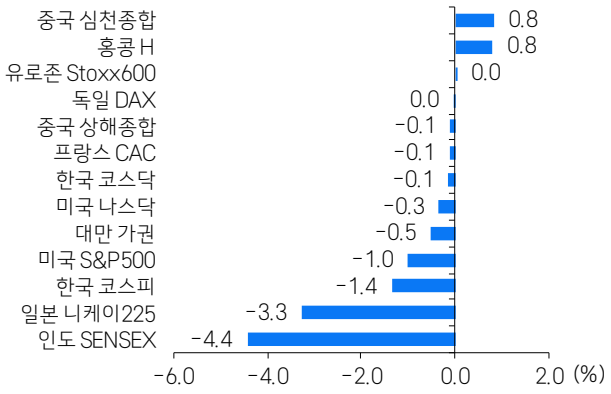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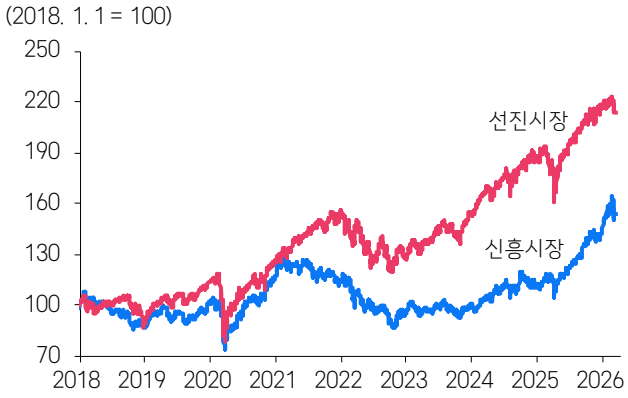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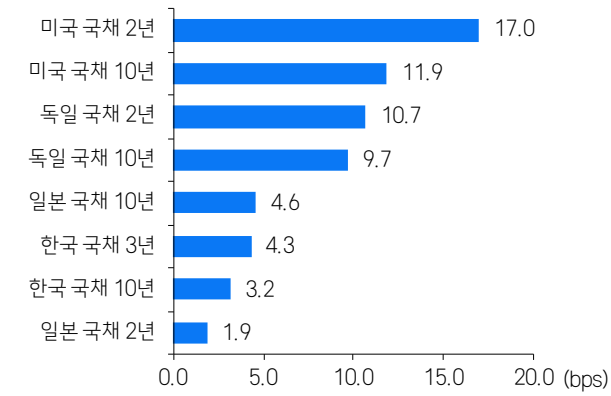
참고: 3월 1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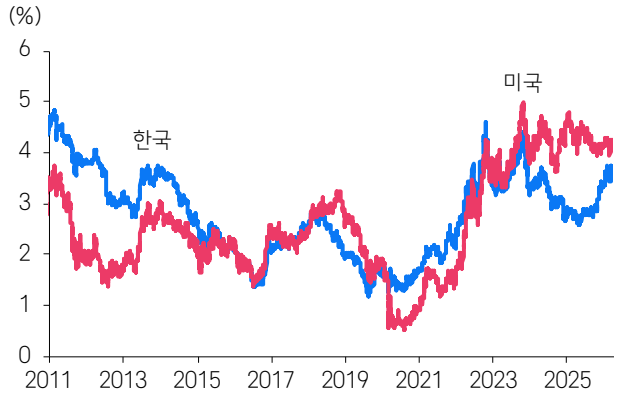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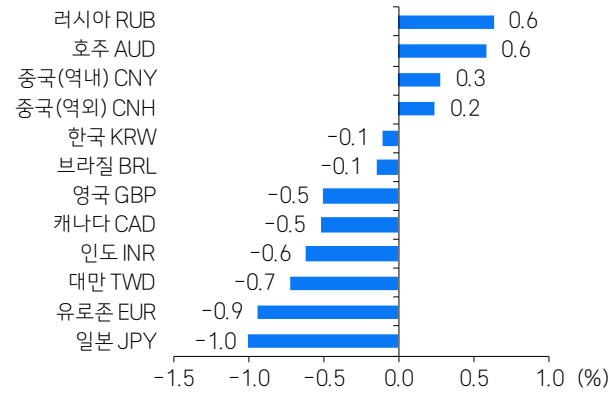
참고: 3월 1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3월 1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3개월	1년	변화 내용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1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3.75%로 동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경제 전망의 개선, 특히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 약화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 완화를 강조하며, 추가 인하의 시급성이 낮아졌음을 시사. 또한, 지난 3연속 금리 인하를 통해 중립 금리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 서두르지 않고 경제 지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well-positioned)에 있다고 강조
유로존	2.00	2.25	25.06.05	0	(50)	ECB, 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 라가르드 총재는 라가르드 총재는 "여전히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고, 인플레이션도 좋은 수준"이라 밝혔으며,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7%를 기록해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부연
한국	2.50	2.75	25.05.29	0	(25)	한국은행, 2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2.50%로 동결. 한국은행은 '26년 성장률을 1.8%→2.0%로, 소비자물가를 2.1%→2.2%로 각각 상향 조정. 이창용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서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금융안정과 성장을 살피겠다고 밝혔으며,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금리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언급
일본	0.75	0.50	25.12.19	25	25	일본은행,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0.75%로 동결. 정책위원들의 경제전망은 FY'25~26년의 성장 및 물가(에너지 및 신선 신품 제외) 전망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와 지난해 추경을 반영하여 0.2~0.3%pts 상향 조정됨. 반면, 오후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장기 금리 급등을 경계하며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신중했으며 필요시 국채 매입을 시사
영국	3.75	4.00	25.12.18	(25)	(75)	BOE, 2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 3.75%로 동결.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면서도 올해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힘. BOE 성명에서 인플레 전망 변화에 따라 완화의 규모와 시기는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중국	1.40	1.50	25.05.08	0	(10)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융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7.00	7.25	25.12.18	(25)	(250)	멕시코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7.00%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최근 일부 국가 수입품에 부과되기 시작한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인도	5.25	5.50	25.12.05	0	(100)	인도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2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견조한 경제 성장과 관세 압력 완화 등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
브라질	15.00	14.75	25.06.18	0	175	브라질 중앙은행, 1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지정학적 상황이 브라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재정정책 동향을 주시한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적절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여건이 갖춰질 경우 3월 회의 때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100)	(550)	튀르키예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37.00%로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를 동결하고 완화 기조를 일시적으로 멈출 것을 시사. 또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악화될 경우 통화 정책을 긴축하겠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4.75	5.00	25.09.17	0	(10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 속 루피아화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호주	3.85	3.60	26.02.03	25	(25)	호주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3.85%로 인상. '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 중앙은행 측은 '25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또한, 물가에 대해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중반에 3.7%로 정점을 찍고 내년 초순까지 2~3%인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스웨덴	1.75	2.00	25.10.01	0	(50)	스웨덴 중앙은행,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견고하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고 설명. 또한 기준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스위스	0.00	0.25	25.06.19	0	(50)	스위스 중앙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미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그친다며, 미국 무역정책이 스위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한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총재는 많은 경제 주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책무 이행에 정말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임
러시아	15.50	16.00	26.02.13	(100)	(550)	러시아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러시아의 기준 금리 인하를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졌으며, 세제 개편이 연초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관련 있다고 언급
뉴질랜드	2.25	2.50	25.11.26	0	(150)	뉴질랜드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2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다만,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면서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2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에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을 캐나다 경제 전망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3월 6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5,585	5,252	5,533	5,610	5,583	5,484	(1.8)	(0.4)	31.6	61.5	113.1	103.6	127.5	30.1
미국 S&P 500	6,740	6,796	6,781	6,776	6,673	6,673	(1.0)	(2.4)	(2.3)	1.3	20.8	29.2	73.1	(2.5)
일본 NIKKEI 225	55,621	52,729	54,248	55,025	54,453	53,895	(3.1)	(5.4)	6.0	20.4	46.5	39.3	93.6	7.1
영국 FTSE	10,285	10,250	10,412	10,354	10,305	10,305	0.2	(1.4)	6.8	11.0	20.6	32.6	36.5	3.8
독일 DAX	23,591	23,409	23,969	23,640	23,590	23,590	(0.0)	(5.3)	(2.5)	(0.5)	4.5	31.3	57.7	(3.7)
중국 상해종합	4,124	4,097	4,123	4,133	4,129	4,120	(0.1)	0.9	5.9	6.4	22.7	35.4	26.0	3.8
홍콩 H	8,628	8,581	8,710	8,705	8,700	8,699	0.8	(3.7)	(4.2)	(7.1)	0.7	46.6	32.0	(2.4)
인도 Sensex	78,919	77,566	78,206	76,864	76,034	75,460	(4.4)	(8.7)	(11.5)	(7.9)	2.2	3.7	29.6	(11.4)
인도네시아 JCI	7,586	7,337	7,441	7,389	7,362	7,209	(5.0)	(12.2)	(16.8)	(8.2)	8.5	(2.9)	6.2	(16.6)
브라질 iBovespa	179,365	180,915	183,447	183,969	179,284	179,284	(0.0)	(3.9)	11.5	26.0	42.7	40.1	73.9	11.3
MSCI World (USD)	4,407	4,418	4,438	4,426	4,363	4,363	(1.0)	(3.3)	(1.0)	2.6	21.2	28.5	65.0	(1.5)
MSCI EM (USD)	1,500	1,455	1,504	1,516	1,492	1,492	(0.5)	(4.1)	7.3	12.5	34.9	42.6	55.2	6.2
채권 금리 (%)														
한국 국채 3년	3.22	3.40	3.28	3.25	3.27	3.27	4	13	18	84	70	2	(19)	31
한국 국채 10년	3.62	3.74	3.62	3.61	3.65	3.65	3	8	24	83	87	32	22	26
미국 국채 2년	3.56	3.54	3.59	3.65	3.74	3.73	17	32	21	18	(22)	(90)	(24)	26
미국 국채 10년	4.14	4.10	4.16	4.23	4.26	4.26	12	21	8	20	(1)	7	69	9
일본 국채 10년	2.17	2.19	2.18	2.17	2.19	2.23	5	0	27	63	68	146	188	16
독일 국채 10년	2.86	2.86	2.84	2.93	2.96	2.96	10	20	10	24	10	59	70	10
중국 국채 10년	1.80	1.82	1.82	1.82	1.82	1.82	2	3	(2)	2	(4)	(52)	(106)	(3)
인도 국채 10년	6.69	6.72	6.67	6.64	6.67	6.68	(1)	(0)	8	19	(2)	(36)	(68)	9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61	6.76	6.71	6.71	6.72	6.76	15	36	58	43	(18)	13	(8)	69
브라질 국채 10년	14.16	13.83	13.78	13.82	14.07	14.07	(9)	45	44	31	(71)	324	101	34
JPM EMBI Global	238.9	247.2	233.1	230.2	233.5	233.5	(5)	8	1	(31)	(73)	(66)	(170)	2
장단기 금리 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58	0.56	0.57	0.58	0.52	0.53	(5)	(11)	(13)	2	22	97	93	(17)
일본 국채 10년-2년	0.92	0.94	0.93	0.92	0.92	0.95	3	2	7	23	27	38	58	6
독일 국채 10년-2년	0.55	0.54	0.58	0.55	0.54	0.54	(1)	(18)	(16)	(16)	(13)	106	97	(19)
중국 국채 10년-2년	0.42	0.43	0.43	0.44	0.43	0.44	2	4	(1)	6	22	25	8	(1)
한국 국채 10년-3년	0.40	0.34	0.34	0.36	0.38	0.38	(1)	(4)	6	(0)	17	30	41	(5)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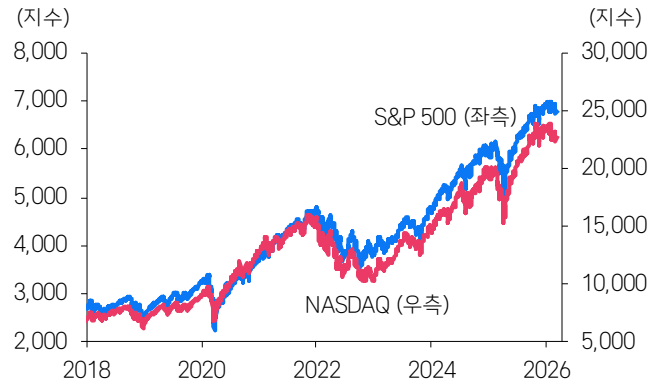
	3월 6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37.0	39.0	37.9	38.5	38.5	38.5	2	4	8	(1)	(2)	0	0	9
일본 (5년)	15.3	15.3	15.4	15.3	15.3	15.3	0	(0)	(0)	3	5	3	(2)	1
독일 (5년)	25.1	28.5	26.8	26.7	26.7	26.7	2	4	4	8	(5)	(7)	(15)	5
중국 (5년)	3.5	4.0	3.5	3.5	3.5	3.5	(0)	(0)	(2)	(2)	(5)	(5)	(8)	(0)
한국 (5년)	45.1	47.7	45.0	46.1	46.1	46.1	1	3	3	8	(3)	(20)	(26)	2
인도네시아 (5년)	85.2	92.2	88.3	88.4	88.4	88.4	3	7	16	20	8	19	(11)	20
브라질 (5년)	129.2	129.2	134.0	128.4	129.9	129.9	1	(3)	(7)	(3)	(48)	9	(107)	(8)
러시아 (5년)	-	-	-	-	-	-	-	-	-	-	-	-	-	-
상품 가격														
CRB 지수	352.1	356.9	348.0	355.0	365.0	365.0	3.7	19.1	22.4	21.0	20.5	29.9	37.9	22.2
WTI (달러/배럴)	90.9	94.8	83.5	87.3	95.7	95.5	5.1	51.9	66.3	52.4	43.5	19.8	27.7	66.4
두바이유 (달러/배럴)	99.1	107.6	105.1	113.5	123.1	123.1	24.1	83.5	98.3	75.3	73.4	47.5	51.9	98.4
LME 구리 (달러/톤)	12,862	12,954	13,140	13,042	13,000	13,000	1.1	0.9	12.9	29.1	32.9	45.6	45.6	4.6
금 (달러/oz)	5,172	5,139	5,192	5,176	5,079	5,110	(1.2)	1.4	18.9	40.3	71.0	135.0	167.0	18.3
은 (달러/oz)	84.54	86.96	88.33	85.74	83.84	84.53	(0.0)	9.2	36.4	100.4	149.6	238.1	287.7	18.0
옥수수 (센트/부셸)	447.0	437.5	436.3	444.3	448.3	448.3	0.3	3.8	3.9	12.3	(1.2)	5.1	(28.2)	1.8
소맥 (센트/부셸)	611.3	598.0	584.8	588.5	592.3	592.3	(3.1)	7.9	10.8	17.7	8.2	11.3	(11.9)	16.8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488	1,476	1,466	1,476	1,488	1,490	(0.1)	(3.1)	(0.8)	(6.5)	(2.3)	(11.8)	(12.6)	(3.3)
일본 엔화	157.78	157.67	158.05	158.95	159.35	159.39	(1.0)	(4.2)	(2.2)	(7.3)	(7.3)	(7.3)	(16.4)	(1.7)
유로화	1.162	1.164	1.161	1.157	1.151	1.151	(1.0)	(3.1)	(2.0)	(2.0)	6.0	5.1	7.2	(2.1)
중국 위안화 (역내)	6.905	6.907	6.869	6.874	6.881	6.884	0.3	0.3	2.5	3.5	5.2	4.4	(0.5)	1.5
중국 위안화 (역외)	6.903	6.888	6.879	6.877	6.881	6.886	0.2	0.2	2.4	3.5	5.3	4.5	(0.5)	1.3
인도 루피화	91.75	92.33	91.81	92.04	92.20	92.32	(0.6)	(1.8)	(2.1)	(4.4)	(5.8)	(10.2)	(11.0)	(2.6)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6,906	16,945	16,861	16,870	16,893	16,929	(0.1)	(0.5)	(1.7)	(3.3)	(3.0)	(8.0)	(9.2)	(1.4)
브라질 헤알화	5.238	5.158	5.159	5.157	5.246	5.246	(0.1)	(0.4)	3.3	2.1	10.6	(5.2)	0.0	4.4
달러 인덱스	98.99	99.18	98.83	99.23	99.74	99.77	0.8	3.0	1.4	2.3	(3.9)	(2.9)	(3.7)	1.5
아시아 달러 인덱스	92.2	92.1	92.7	92.5	92.2	92.1	(0.1)	(0.9)	0.7	(0.3)	2.5	0.2	(2.7)	(0.1)
JPM 이머징 통화 지수	46.54	46.76	47.05	46.71	46.36	46.36	(0.4)	(2.8)	0.0	1.0	3.6	(1.4)	(7.4)	(0.5)

참고: 3월 13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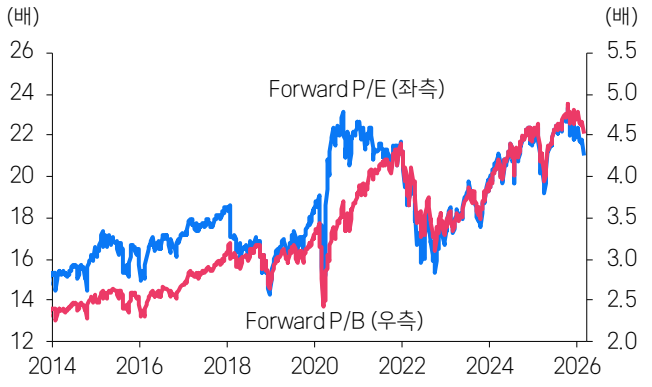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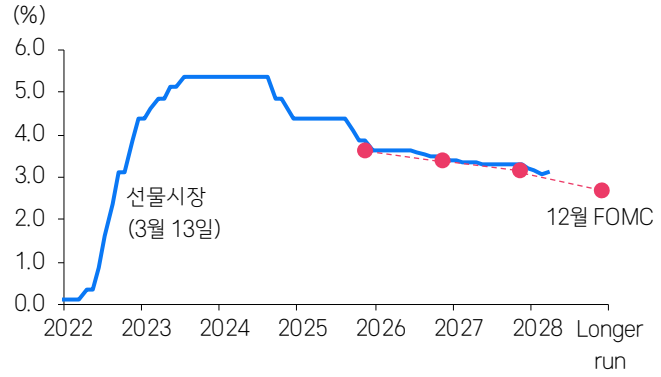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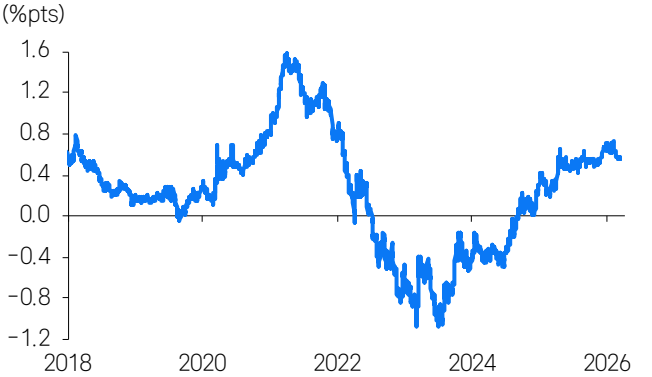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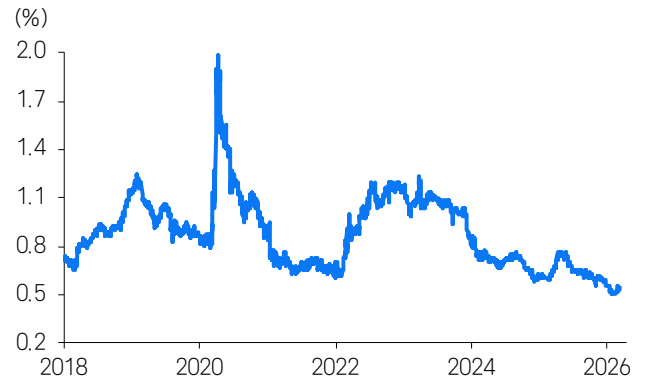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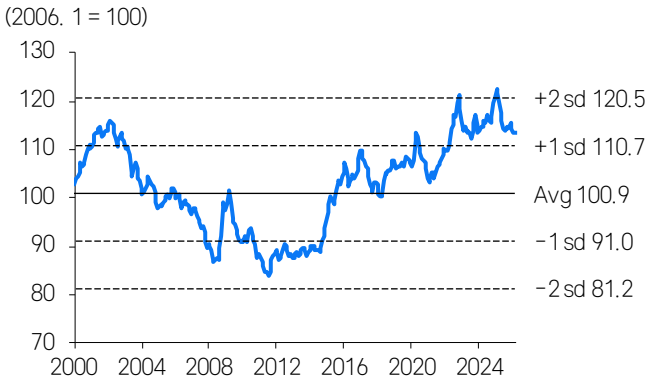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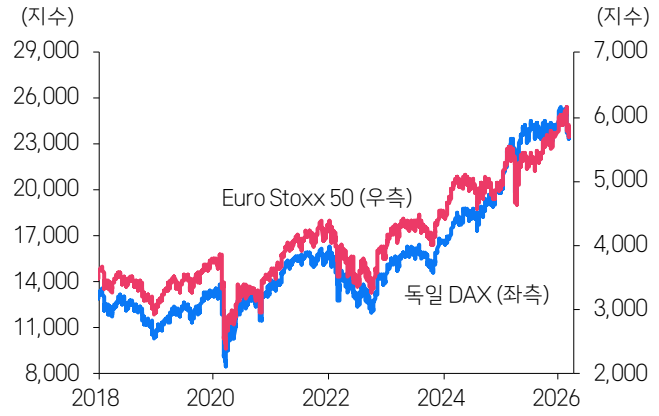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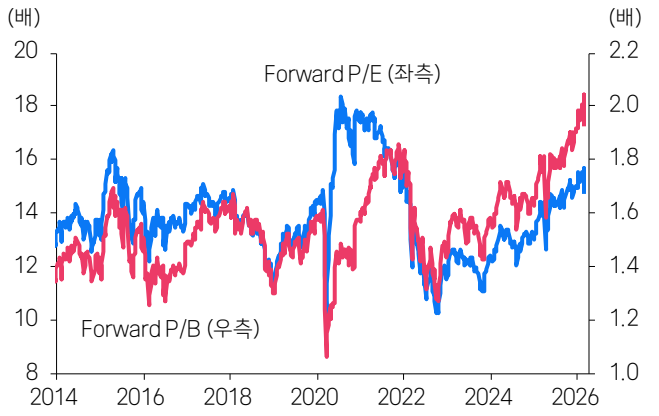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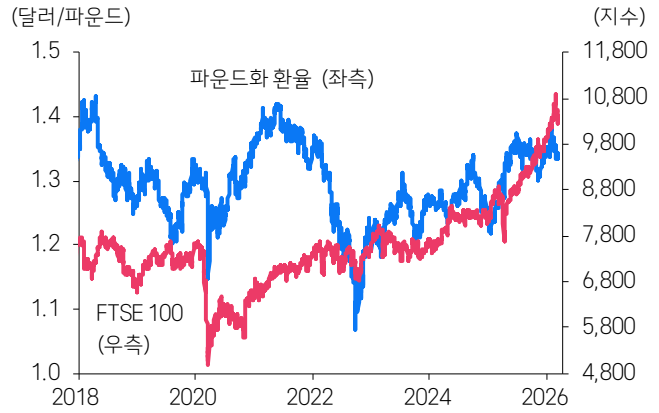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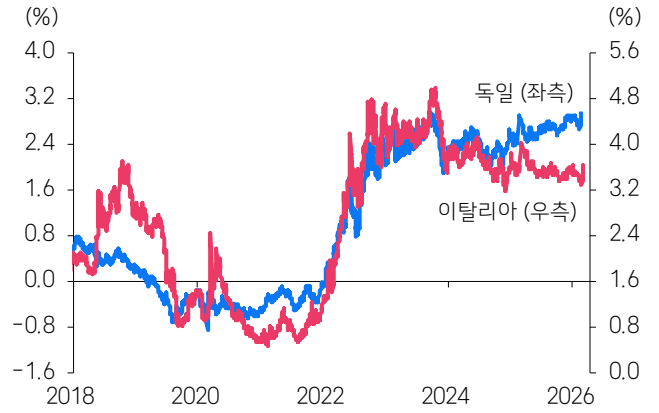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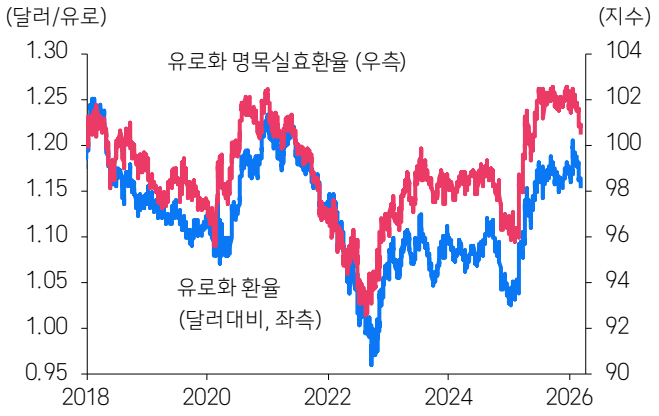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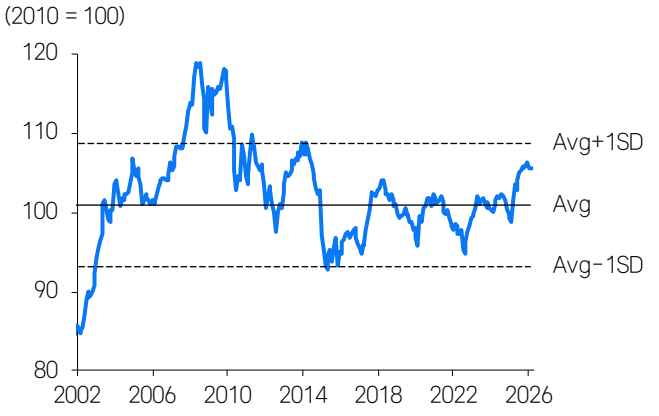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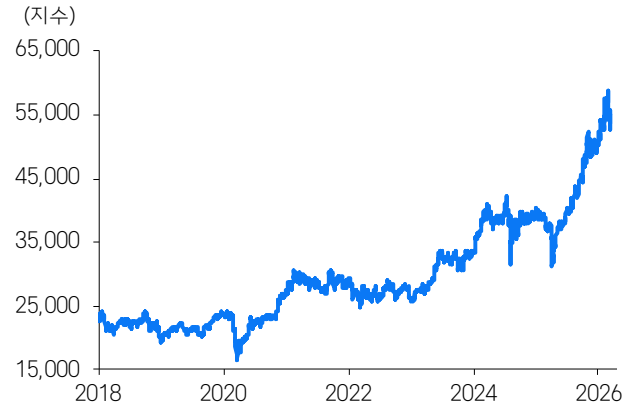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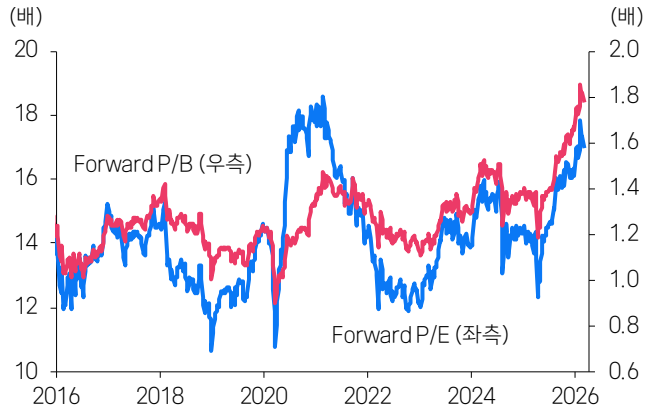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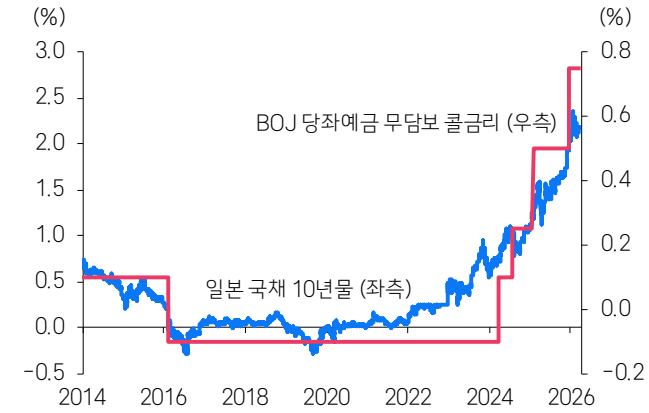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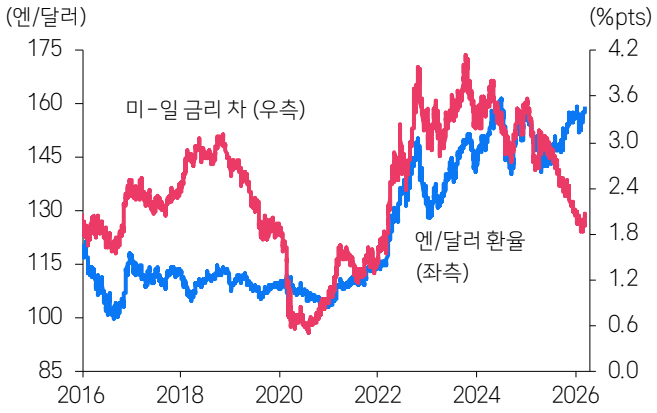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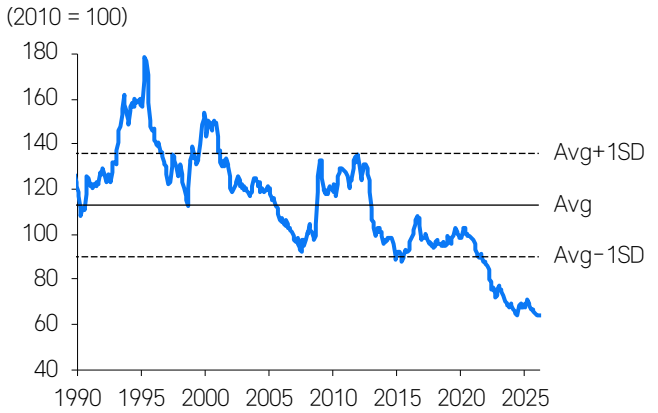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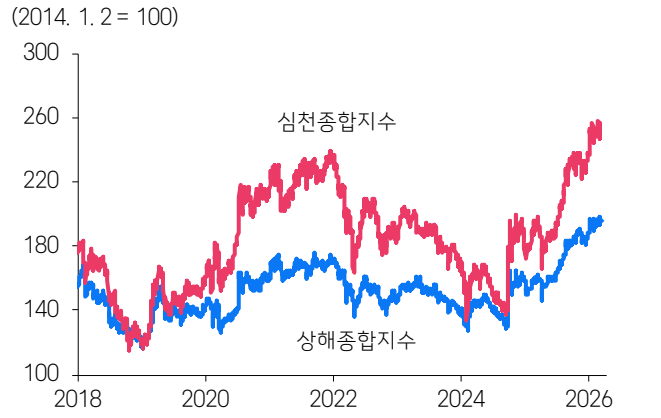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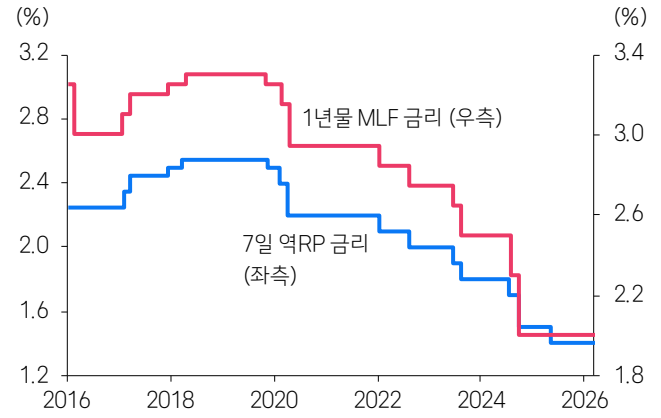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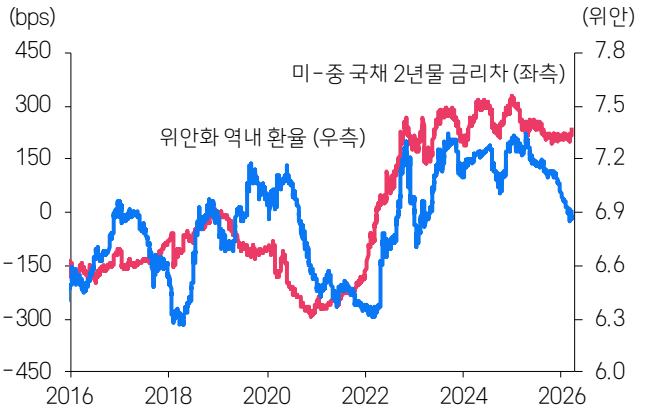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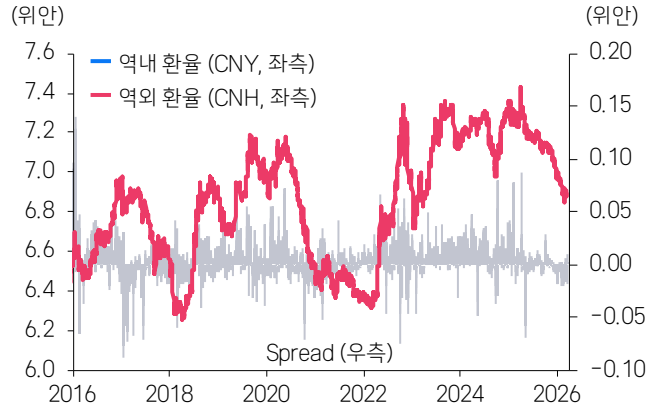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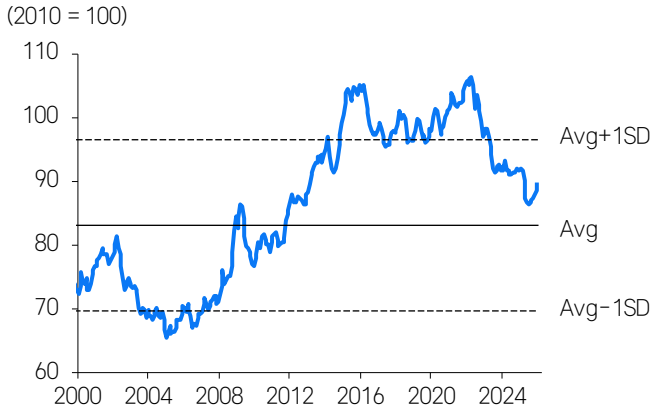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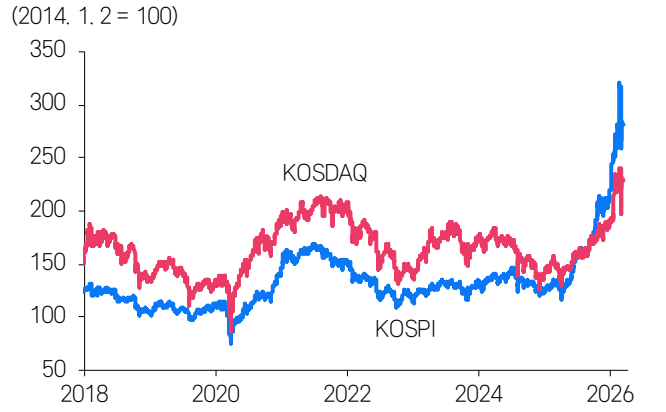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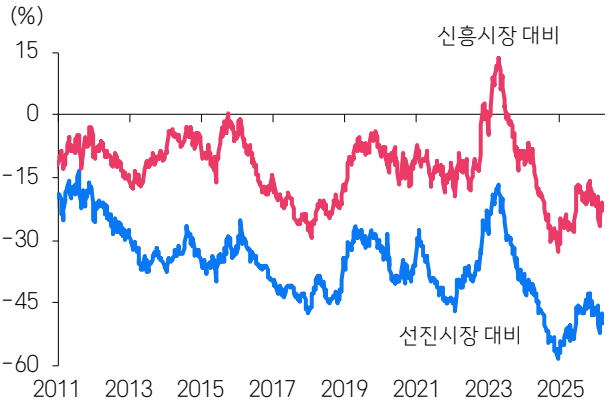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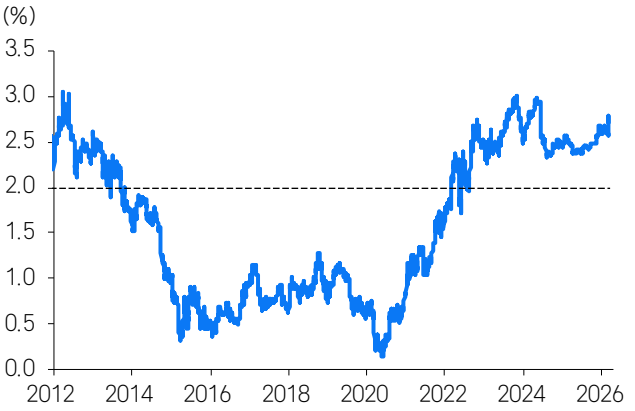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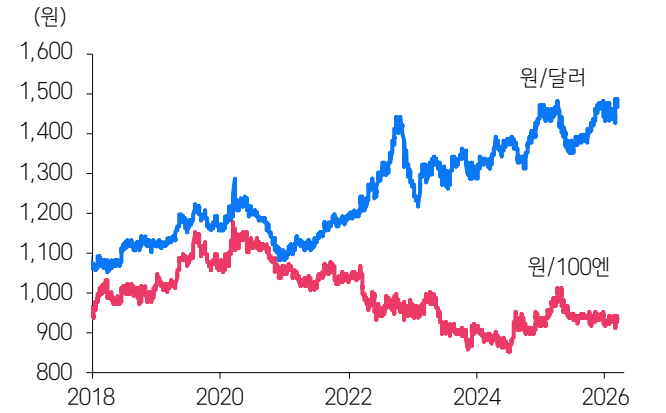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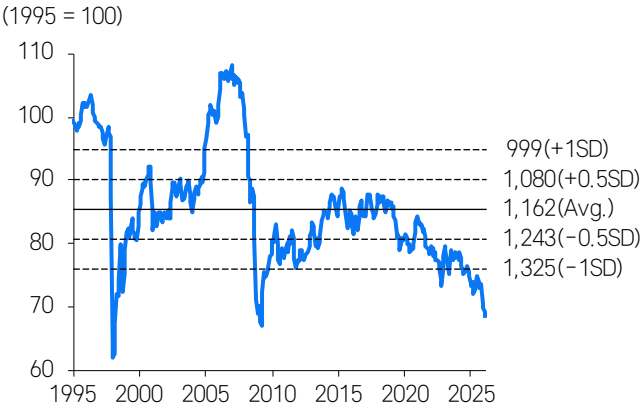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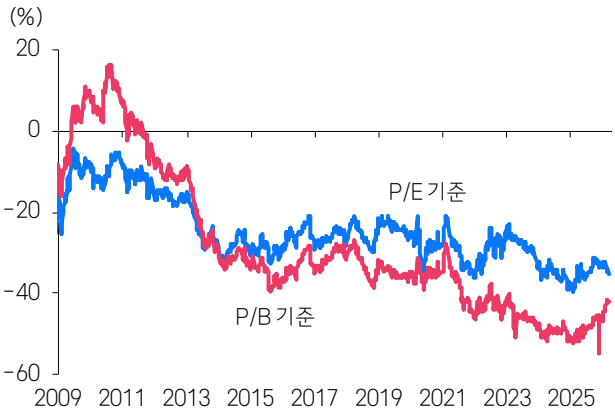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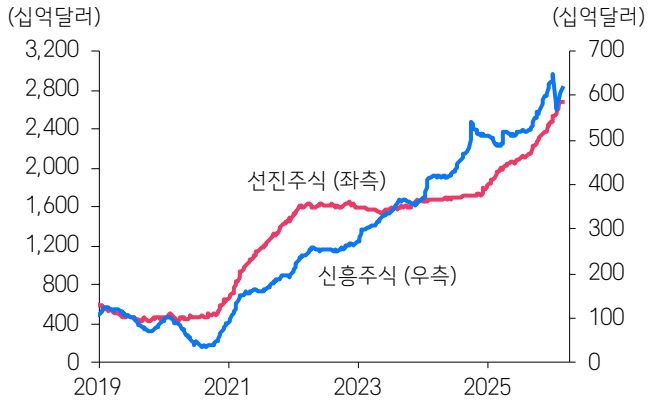
참고: MSCI 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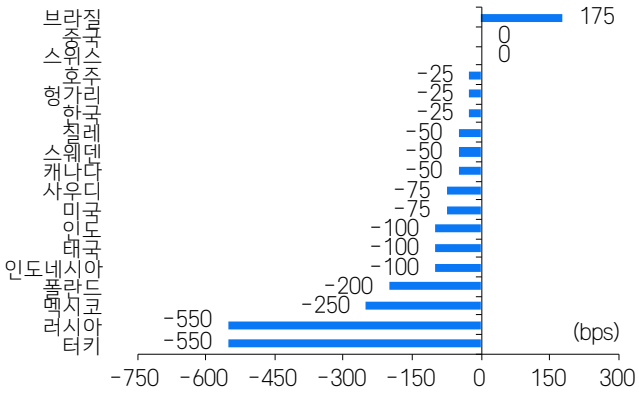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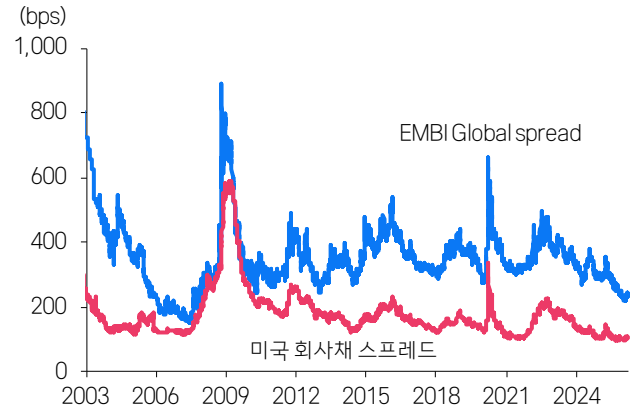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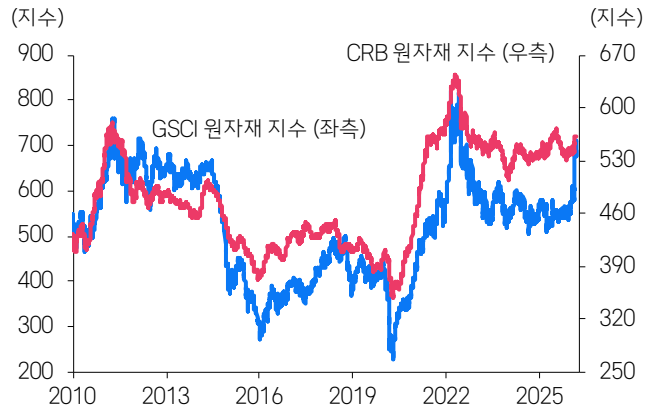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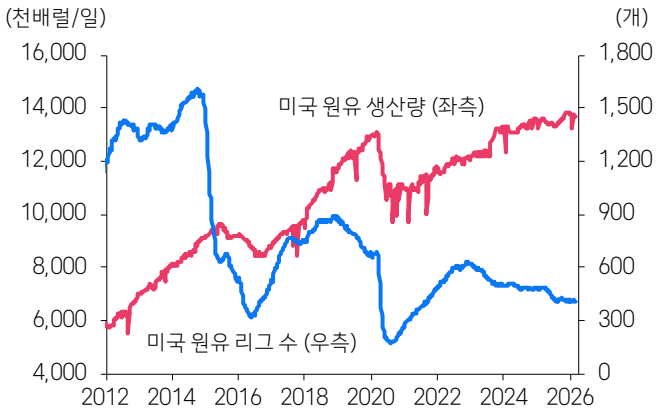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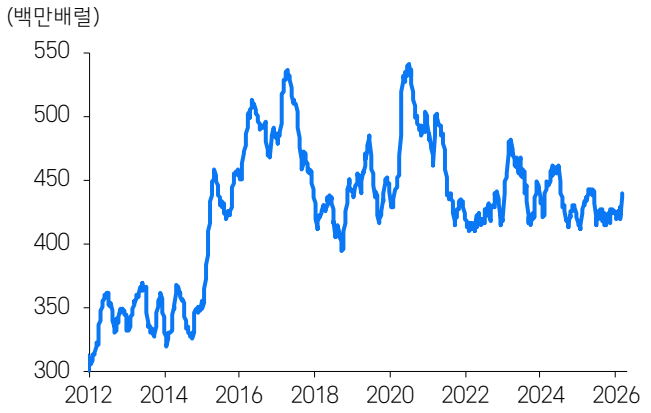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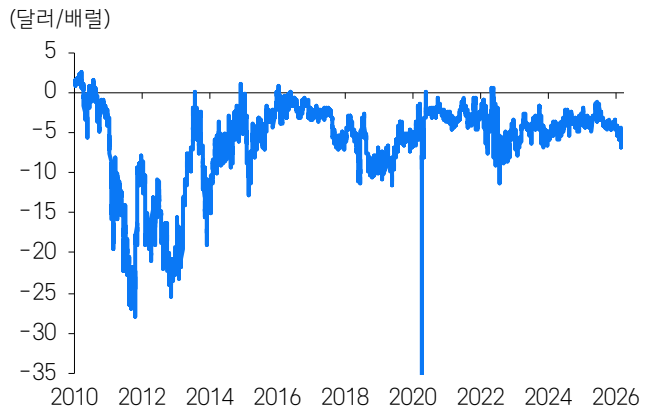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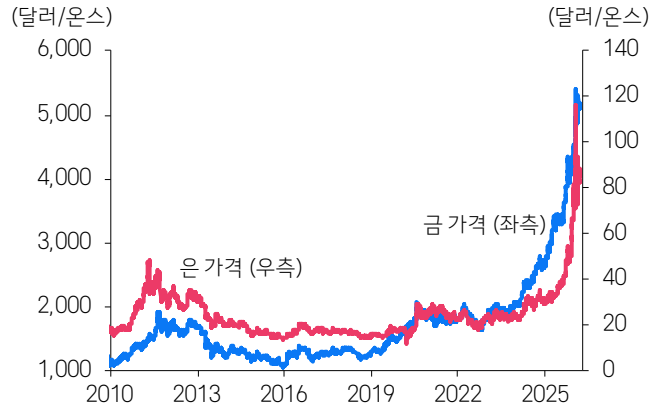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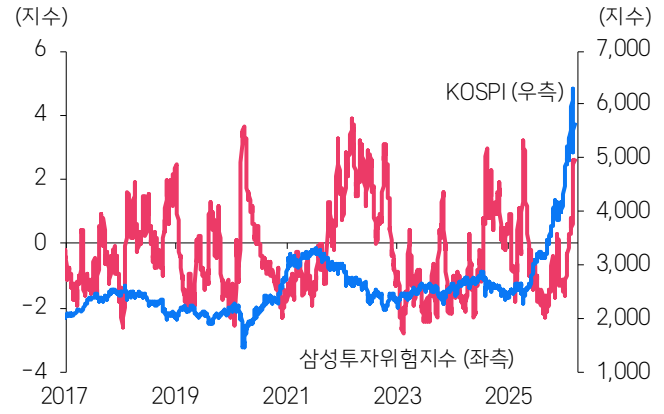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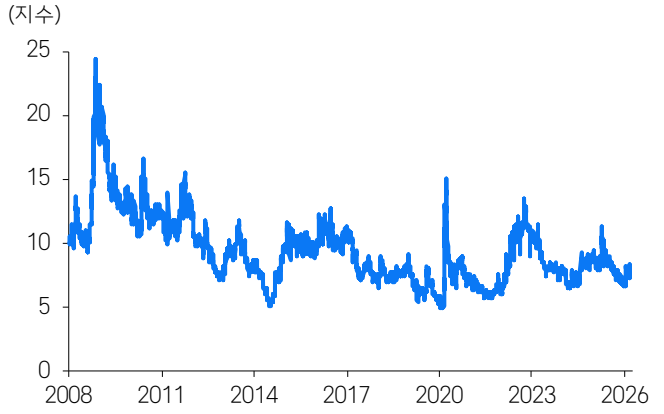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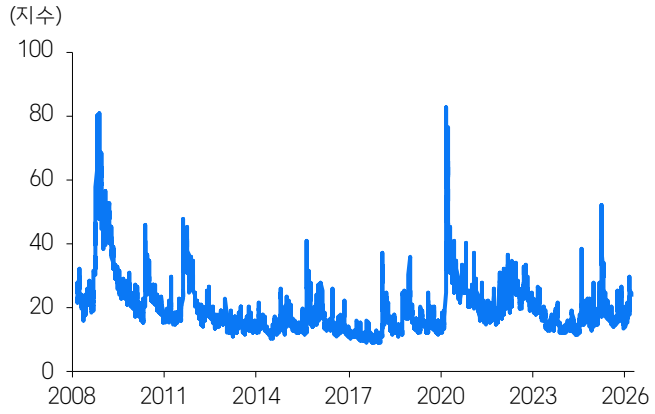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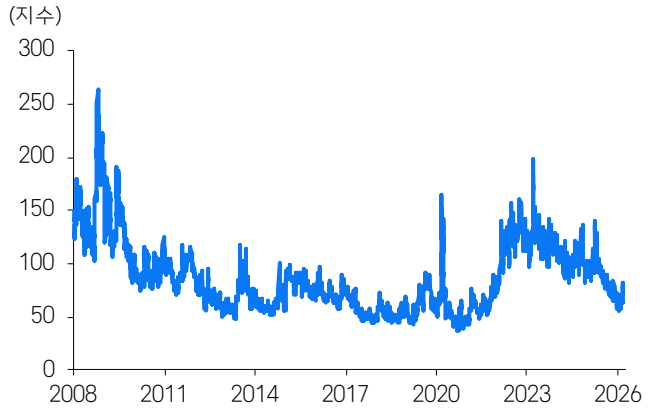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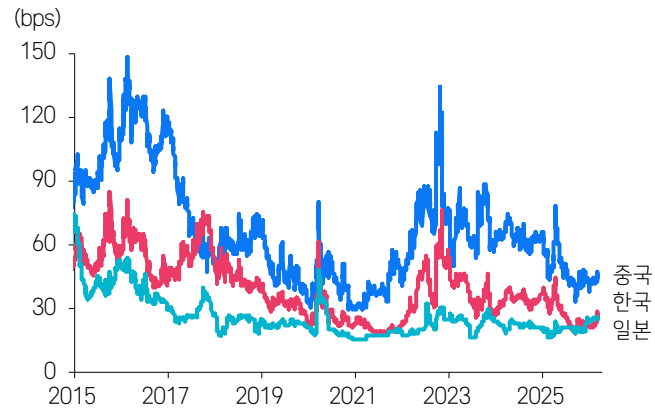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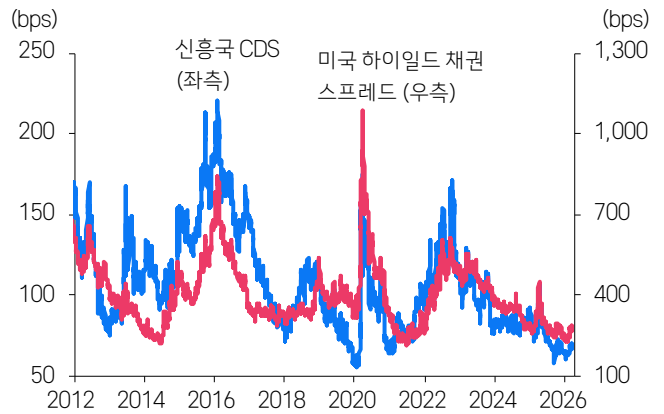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